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연구기록 관리 방안 연구

- “부엌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 자료의 분류 및 기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Ethnographic Data: Focusing on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Research Data of “Cultural History of Kitchen” Project

윤 택 림(Taek-Lim Yoon)*

최 정 은(Jung-Eun Choi)**

목 차

- | | |
|---------------------------|---------------------------------|
| 1. 문제 제기 | 4. “부엌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기록 관리 방안 |
| 2.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4.1 자료의 생산과 수집 맥락 |
| 2.1 연구기록이란 | 4.2 자료의 분류 |
| 2.2 연구기록의 분류 및 유형 | 4.3 자료의 기술 |
| 2.3 연구기록 관리 연구의 방향 | 4.4 사례: 계층별 기술적용 |
| 3.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연구기록으로서의 특징 | 5. 맺는 글: 연구기록 관리의 지평을 넓히며 |
| 3.1 생산과 수집 | |
| 3.2 유형과 분류 | |

<초 록>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기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연과학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과 질적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차이를 밝히고 질적 연구 자료를 연구기록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의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연구기록의 개념, 분류와 유형, 그리고 연구의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문화기술지적 자료를 연구기록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맥락을 생산과 수집의 특수성을 통하여 정리하고 그것에 연구기록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분류와 기술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윤택림이 수행했던 “부엌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에서 생산 수집된 자료들을 사례로 이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질적 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기록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시키면서, 자료를 생산한 연구자와 아키비스트와의 공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기록관리의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을 연구기록화 하는 작업은 일상사,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시발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연구기록, 문화기술지적 자료, 연구노트, 현지조사노트, 공동체 아카이브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research records in order to include ethnographic data into research records by comparing the laboratory records with the ethnographic data produced in the field work. And it discusses the records management task of ethnographic data using the field work data collected in the research project of 'Cultural History of Kitchen' which was carried out by one of the authors from 2002 to 2005. The authors draw out the classification of laboratory records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research records, apply it to the ethnographic data and illustrate the new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research records reflecting the features of ethnographic data. Doing so, the authors expand the concept of research records and provide a case study of research records management based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archivist. Ultimately this study will be a footstep toward construction of community archives and everyday life archives since the records for those archives may be as diverse as the research records based on the ethnographic data from the research project of 'Cultural History of Kitchen'.

Keywords: research records, ethnographic data, laboratory notebooks, field work notes, community archives

*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oralhistory@hanmail.net)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sidezoo81@gmail.com)

■ 접수일: 2012년 7월 20일 ■ 최종심사일: 2012년 7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4일

1. 문제 제기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기록관리학에서 연구기록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록관리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연구기록은 주로 자연과학과 공학의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록들로 연구노트가 핵심적인 것이다. 인류학자와 구술사 아키비스트인 필자들에게 기록관리학에서 다루는 연구기록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협소해 보인다. 왜냐하면 인류학과 구술사는 질적 연구여서 실험실이 아니라 현실 속의 지역사회나 집단 내에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나 구술사가 수집하는 자료들은 매우 다양해서 참고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참여관찰 기록인 현지조사노트(field notes), 인터뷰 기록인 구술 자료(음성 파일 및 녹취록), 사진, 영상, 현지민이나 구술자가 소장하고 있는 물증 등이 있다. 인류학자나 구술사가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연구기록에 포함시킨다면 연구계획서를 비롯하여 연구과제 계약 체결을 포함한 연구비 지출 영수증,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중간 회의록 등의 기록들도 포함될 것이다.

최근의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논문들(임진희 2011; 김지현 2011)은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기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기록관리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에서조차도 질적 자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기록관리학자 자신들이 생산하는 연구기록도 질적 자료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기록관리학자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연구노트도 연구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을 규격화 하려는 시도이지만, 그것은 실험과 달리 연구 수행자들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선택 과정을 거쳐서 기록되는 질적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구노트는 연구가 수행되는 맥락 즉 연구 수행자들의 권력 관계, 작업 조건, 프로젝트 수행 규칙 등 과학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관행은 서구의 실험실에서는 다를 수 있다.

한편 인류학자는 대개 혼자 타문화에 가서 장기간의 체류를 통해 현지조사(field work)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문화기술지적 자료(ethnographic data)를 기초로 하여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현지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이 학위 논문을 비롯한 연구논저의 중요한 증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현지조사노트에 대한 신뢰성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기술지적 자료에 대한 검토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기술지적 자료가 연구기록으로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류학의 초창기였던 1920, 30년대에 출간된 문화기술지들이 하나의 역사적 사료로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기술지적 자료를 사료화하는 작업이 절실해지고 있다. 식민지 시기의 문화기술지들은 당시 식민지였던 사회들의 당대 문화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기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연과학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과 질적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기

록의 차이를 밝히고 질적 연구 자료를 연구기록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의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연구기록의 개념, 분류와 유형, 그리고 연구의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기술지적 자료를 연구기록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맥락을 생산과 수집의 특수성을 통하여 정리하고 그것에 연구기록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윤택림이 수행했던 “부역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에서 생산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기술하여 연구기록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이런 시도는 한국기록관리학에서 연구기록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 중심의 한국기록관리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록을 다양한 삶과 경험, 기억의 재현으로 보면서 기록관리학이 과학적 연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연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인간의 기록들이 기록관리학 내에 들어와서 역사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기록의 민주화를 통해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연구기록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2.1 연구기록이란

연구기록이란 연구과정과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연구기록이 생산됨

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기록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통용되고, 연구기록을 생산한다고 인식하고, 연구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는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이다. 임진희에 따르면 연구기록은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라고 정의되고 있다(2011, 185). 연구 활동 과정이란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승인되고 연구비를 받고, 연구계획서 대로 진행되고 그 연구의 결과물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말하며, 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연구기록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기록관리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기록물은 연구노트다. 김상준은 연구노트를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의 기본 자료가 되는 핵심 연구기록물로 보고 있다(2008, 51).

2.2 연구기록의 분류 및 유형

연구기록의 범주와 유형들은 각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JISC InforNet의 경우 연구기록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2007). 연구계획서를 포함하여 연구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들을 연구과정기록이라고 하고, 보고서나 연구 논문과 같은 연구의 결과물과 생산물을 연구생산기록이라고 하고, 연구비지원서, 계약서, 인력투입표 등을 연구진행기록, 연구노트, 질문지, 음성 및 영상기록,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샘플을 포함한 원자료와 분석 자료를 연구 자료라고 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를 한 김대울은 학술연구 과제 관련 연구기록을 연구관리과정

과 연구수행과정으로 나누었는데(2007), JISC Infor-net의 연구과정기록을 연구관리과정 연구 기록으로 보고 있고, 그 외의 JISC Infor-net의 연구 자료를 제외한 모든 기록을 연구수행과정 기록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김대율이 분류한 이유 중 하나는 연구 당시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연구 논문과 같은 연구결과물만을 수집하고 연구 자료인 중간생산물을 연구기록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연구재단이 되면서 현재에는 KRM 사업에서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현지노트, 사진, 녹취문, 동영상 등 연구정보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공개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료

공개와 사용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관리제도화를 연구한 김상준은 연구기록을 연구지원기록물, 연구관리기록, 연구정보기록물, 연구성과기록물로 분류하고 있다(2008). 최현옥, 이해영은 연구단계를 5단계(연구과제 신청단계, 연구과제 협약단계, 연구과제 등록단계, 연구과제 수행단계, 연구과제 종료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연구관리기록, 연구행정기록, 연구회계기록, 연구정보기록, 연구성과기록을 배치하였다(2010). 임진희는 연구기록의 유형을 '과정 문서류', '연구 데이터세트류', '연구노트', '연구보고서류'로 나누었다(2011). 다음 <표 1>은 기관과 연구자들이 선택한 연구기록의 범주와 자료 형태이다.

<표 1> 연구기록의 범주와 자료 형태(선행연구 정리)¹⁾

기관 및 연구자	범주 1	범주 2	범주 3	범주 4
JISC Infor-net	연구과정기록	연구진행기록	연구자료	연구생산기록
김대율	연구관리과정 연구기록	연구수행과정 연구기록		연구수행과정 연구기록
김상준	연구지원기록물	연구관리기록물	연구정보기록물	연구성과기록물
최현옥, 이해영	연구행정기록 연구회계기록	연구관리기록	연구정보기록	연구성과기록
임진희	연구과정문서류		연구데이터세트류/연구노트	연구보고서류
자료 형태	연구계획서, 연구 지원 및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들	연구계획서, 연구비 지원서, 계약서, 인력투입표,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연구노트, 기술노트, 실험프로 토콜 질문지, 음성 및 영상기록,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샘플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학술보고서, 연구 논문과 같은 연구의 결과물과 생산물

1) <표 1>에서 각 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주 1-연구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회계, 행정 서류 및 연구계획서를 말한다.
- *범주 2-연구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진행이 되면서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 인력투입표, 연구비 사용 증명서 등을 말한다.
- *범주 3-연구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생산되는 각종 형태의 자료들을 말하며, 따라서 이 연구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원자료들을 말한다.
- *범주 4-연구프로젝트가 끝나고서 연구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자료들과 연구의 원자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결과물들을 말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기록의 4가지 범주에는 각 연구자들이 다르게 분류하는 자료의 형태(진하게 표시된 것들)가 있는데, 그것들은 연구계획서, 연구비 지원서 및 계약서, 각종 보고서와 연구노트다. 연구계획서는 연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지만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 또는 관리 차원에 둘 것인가 아니면 연구의 수행 과정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연구자들의 분류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비 지원서와 계약서도 연구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연구를 지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생산되지만 다년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도 생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리 및 진행기록에 모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각종 보고서는 실상 연구 진행 과정에서 생산되지만, 학술발표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수행기록이면서 동시에 연구성과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혼란스러운 자료의 형태는 연구기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연구노트다. 김지현은 Shankar를 따라서 연구노트를 의료기록과 현지조사노트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기록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기록은 표준화되고 구조적인 양식을 통해 작성되는 반면, 현지조사노트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된다. 연구노트는 작성 지침이 있지만 실험실의 특수성이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2011, 143). 또한 연구노트는 기록물, 정보, 의사소통수단, 증거의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윳글, 144), 한국기록관리학에서 현재까지는 기록물, 정보, 증거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노트의 의사소

통수단의 기능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연구노트를 연구의 데이터로서 연구정보기록으로 볼 것인가 또는 연구의 결과물인 연구성과기록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JISC InforNet은 원자료 또는 분석된 자료 형태의 연구 자료에 연구노트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연구노트를 연구정보기록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현옥, 이해영은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분류에서 연구정보기록에 연구노트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험관찰일지, 연구조사기록이 들어가 있음으로 연구노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자료를 연구정보기록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임진희는 다른 연구 자료들과 분리하여 연구노트를 분류하였는데, 이것을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로 보기 때문에 연구정보기록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상준은 그의 논문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성과기록물에 연구노트를 넣어두고 있다(2007, 53). 이는 연구성과물들이 연구노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자들은 모두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정부연구기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연구기록물의 형태를 가지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현지조사 시 작성하는 현지조사노트는 연구노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지조사노트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 자료로서 연구정보기록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지조사의 연구결과물은 바로 문화기술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들은 연구노트는 연구결과기록물이 아니라 연구정보기록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연구기록 관리 연구의 방향

연구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연구기록 관리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의 방향은 “연구기록 관리의 목적을 연구 프로젝트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임진희 2011, 185). 이것은 연구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관리해야 할 대상 기록을 미리 선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들이다(김대율 2007; 여상아 2008; 김정아 2008; 최현옥, 이해영 2010). 또 하나의 방향은 “연구기록의 관리 목적을 연구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품질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윅글, 같은 쪽). 이는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연구노트를 잘 구조화하고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들이다(김상준 2007; 임진희 2011; 김지현 2011). 초기에는 연구기록 관리에 관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표준 작동 절차)의 설치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전자연구노트의 도입으로 연구노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기록관리 연구들의 특징은 대개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실을 연구 사례로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예외적인 것은 김대율의 연구로 연구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기록관리가 연구결과물 중심에서 중간생산물 수집 관리문제로 확대 및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과학과 공학보다 더 넓은 분

야의 연구기록을 다루는 것을 말하는데, 정작 질적 연구를 포함하는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연구기록물의 특징이나 차이성에 대한 인식은 보이고 있지 않다. 즉 한국기록학에서는 아직도 연구기록에 대한 매우 협소한 인식과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진희가 분석한 InterPARES2 연구에서는 구조화되고 공식적인 기록 외에도 덜 구조화된 정보도 포함될 것을 제안하고 있어서 연구기록의 범주가 확대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록은 점차 특정 분야에 연관된 데이터세트에 축적될 원자료의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임진희 2011, 186). 김지현은 최근 미국 기록학에서 논의되어온 기록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증거와 정보라는 두 측면을 강조해온 기록의 개념이 사실은 다양한 기록의 의미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새로운 기록의 개념이 나오고 있다(김지현 2011, 141). 김지현이 소개하는 Yeo의 “활동의 지속적인 재현(persistent representation of activities)”이나 Ilerbaig의 “포괄적인 기록” 개념들은 관료적, 행정적 의미의 기록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 집단이나 조직, 활동의 문화적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윤은하에 의하면 현재 기록과 기록관리의 흐름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의 개별적이고 다원적인 기록 전통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2011).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의 생산물인 연구노트의 경우, 특정 기관이나 연구실에서의 과학적 활동의 문화적 특징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인식, 즉 연구노트의 생산 맥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노트는 실험실에서의 기록생산 및 관

리가 조직의 기억을 포함하여 Shankar가 말하는 “지식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즉 실험실 내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김지현 2011, 142). 이렇게 연구기록의 다양성과 연구기록 생산의 맥락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연구노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기록 관리 연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관리 연구로부터 대학연구실 사례 연구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전자연구노트의 도입에 따라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면서 실제로 연구노트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연구방법은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사용하고 있다. 임진희는 정부출연연구소 4개 기관과 민간연구소 1개 기관에서 총 5명의 담당자와 전화와 대면으로 총 240분(4시간)의 인터뷰를 하였다(2011, 180). 대학연구소의 연구노트 생산 맥락을 연구한 김지현은 2011년 3월 30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개별 면담과 집단 면담을 통해서 총 7명을 총 4시간 가량 인터뷰하였다(2011, 147).

이렇게 연구기록 관리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수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연구기록의 범주 확대 뿐만 아니라, 연구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의 역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록학자들이 생각하는 연구기록의 의미와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연구기록의 의미는 다르다. 연구자들은 연구기록의 진본성보다는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임진희 2011, 187). 연구자들이 연구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나온 것에 무게를 둔다는 것은 연구기록 생산의 맥락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기록 생산의 맥락을 잘 아는 아키비스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즉 InterPARES2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임진희 2011, 188), 연구기록 아키비스트는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기록 생산 과정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자격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기록관리 연구는 연구기록의 개념과 범주 확장이라는 측면과 연구기록 생산의 맥락 연구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개는 현재 한국기록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일상사아카이브와 공동체아카이브와 맞닿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민이나 특정 집단의 일상생활, 생활사를 기록하는 공동체아카이브는 증거와 정보만을 강조하는 기록 개념으로는 담보할 수 없는 다양한 기억과 의미의 기록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3.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연구기록으로서의 특징

3.1 생산과 수집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현지조사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문화기술지적 자료라고 한다. 윤택림은 “인류학자가 현지조사 시 수집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적 자료에는 문자 이외의 다양한

자료들 - 구술, 사진, 영상, 지형지물, 유물, 연행 등 -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문서 중심의 기록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2004, 114). 최근의 미국 기록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은 특정 문화 속에 속한 특정 사람들이 살아온 삶과 기억의 재현들이다.

전통적으로 인류학자들은 타문화에 가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현지민의 언어를 습득하여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주로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때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의 자료 생산 및 수집과 다른 특징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가 되어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에서 현지민과 상호관계를 통해서 자료 생산과 수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윌책, 42).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은 통계적 처리가 어려운 질적 자료다. 즉 연구기록 생산의 맥락에 연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기술지적 자료를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이라고 보고 있다.

현지조사에서는 이렇게 연구 집단이 아니라 대개는 인류학자 혼자서 다른 연구 구성원들의 승인이나 논의도 없이 연구가 수행되고 자료가 생산되고 수집되기 때문에, 또한 실험실과 달리 인류학자가 통제할 수 없는 현지의 일상 속에서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문화기술지적 자료, 질적 자료는 신뢰성(reliability) 보다는 타당성(validity)이 더 중요하게 된다(윌책, 134). 홀로 수행하는 현지조사에서 나오는 문화기술지적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상 검증되어 오지 않았다. 윌책은 “그러나 현지조사 시 인류학자는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현지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지민과의 관계를 자기성찰적

으로 분석했다면 문화기술지적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기술지적 신뢰도는 현지조사노트로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윌책, 135). 이것은 문화기술지라는 연구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생산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유형과 분류를 통해서 연구노트와 같이 중요한 현지조사노트의 위치를 살펴보자.

3.2 유형과 분류

문화기술지적 자료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대표적인 형태들은 문서, 구술, 사진, 영상, 물증으로 볼 수 있다. 문서는 현지조사 준비 시 연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문헌, 연구계획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서류, 현지조사를 위한 증명서류, 그리고 현지조사노트(field notes)와 현지조사일지(field journals)이다. 구술은 인터뷰 시 녹음한 음성 자료를 말한다. 사진과 영상은 현지조사 시 현지인들, 활동, 행사, 연행 등을 촬영한 자료들이다. 물증은 현지조사 시 인류학자가 현지인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자료들, 예를 들면 사진, 지도, 메모, 상장, 증명서, 티켓, 공예품, 포스터 등이다. 즉 물증은 연구자가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생산한 자료를 기증 받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기술지적 자료가 모두 연구기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자들조차도 현지조사의 기록 유형을 문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지조사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분류도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Spradley (1980)는 현지조사 기록을 압축된 현지조사노

트, 확장된 현지조사노트, 현지조사일지, 분석과 해석노트로 나누었다. Emerson 외(2007, 이용숙 2010 재인용)는 머리 속 기록, 현지 메모, 현지조사노트로 분류하였다. Werner, Schoepfle (1987, 이용숙 2010 재인용)은 현지조사일지, 현지민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텍스트(일종의 녹취록), 역사적 자료, 책, 지도 등 공식적 문서나 현지민이 만든 문서, 연구자의 분석결과나 연구자가 만든 통계자료로 나누었다. 이에 이용숙(2010)은 현장노트(현지조사노트) 및 전자노트의 보완, 현장일지(현지조사일지), 기타 기록으로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용숙은 현지조사 중 체크리스트, 사진과 영상, 지도, 현지민이 생산한 문서를 기타 기록으로 보고 있다.

필자들은 기록관리학에서의 연구기록 분류를 적용하여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을 <표 2>에서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기록관리 연구에서의 분류 방

식을 채택하여 필자들은 현지조사를 동반하는 인류학 연구프로젝트 또는 문화기술지적 연구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을 연구지원 기록, 연구수행기록, 연구정보기록, 연구결과 기록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또한 이 연구 기록은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형태적으로도 분류하였다. 기존의 연구 기록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기술지적 자료에서 현지조사노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류학자는 현지조사노트에 현지조사 중 참여관찰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데 이 때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원자료의 형태뿐만 아니라 분석한 것도 기록할 수 있다. 현지조사일지는 현지조사의 일상적 경험을 자기성찰적으로 쓴 글로서 일기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현지조사 노트와 현지조사일지는 현지조사의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표 2> 문화기술지적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기록 분류2)

	범주 1	범주 2	범주 3	범주 4
연구기록의 분류	연구지원기록	연구수행기록	연구정보기록	연구결과기록
문화기술지적 연구프로젝트	연구계획서 연구비 지급 계약서 현지조사를 위한 증명 서류 연구비 지출서류	연구계획서 진행일정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현지조사노트 현지조사일지 인터뷰 자료 사진, 영상, 지도, 통계 가구조사표 물증	학술발표문 연구논문 단행본 (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형태	문서	문서	문서, 구술, 사진, 영상, 물증	문서

2) <표 2>의 범주 내용은 <표 1>의 경우와 같다.

4. “부엌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기록 관리 방안

4.1 자료의 생산과 수집 맥락

윤택림이 참여한 “부엌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는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가 지원한 “한국의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연구의 하부주제 연구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세 개의 팀(청소년팀, 혼인팀, 부엌팀), 6명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수행되었다. 윤택림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거형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지역에서 살아온 여성들(30대에서 70대까지 총 27명, 총 약 100여 시간)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부엌의 변천 과정과 부엌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4.2 자료의 분류

본 연구는 분류계층을 구성함에 있어 출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출처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려면 우선 ‘퐁(fonds)’을 존중하고, 기록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퐁은 기록을 생산한 조직 전체의 기록, 다시 말해 최상위 계층의 기록 전체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collection)’이 이에 해당한다. 컬렉션은 기록의 생산자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록관리에서 생산자

는 기록을 직접 작성하거나 집필한 자라기보다 “기록집합체를 축적한 주체”이다. 문화기술지적 연구기록의 경우 연구자(혹은 연구단체) 자신이 작성한 기록 뿐 아니라 그가 수집한 각종 자료,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의 기록 집합체의 생산자는 연구자 자신이 된다(설문원 2011, 22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록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중점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연구기록의 누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과제가 종결되어 지원기관으로 결과물이 이관된 후,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연구 집단)가 연구 자료를 정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자 혹은 연구 집단 내 기록관리자 혹은 외부 연구자들이 관련 기록을 검색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기록의 분류는 컬렉션(collection)-시리즈(series)-파일(file)-아이템(item) 체계로 구성된다(〈표 3〉 참조).³⁾

〈표 3〉 문화기술지적 자료 연구기록 분류계층

컬렉션(collection)	생산자(연구자)
시리즈(series)	대주제
파일(file)	연구프로젝트, 차수(연도)
아이템(item)	매체별 기록

컬렉션(collection)은 기록 정리에 있어 가장

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구술기록 분류계층의 경우 아이템 아래에 최하위 단계로서 세그먼트(segment) 단위까지 분류계층으로 정하였다(김은영·강규형 2012, 231). 이는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거나, 개별 연구자나 연구단체가 세그먼트 단위까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 상의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이템 단위의 기술요소를 최대한 잘 반영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상위의 분류체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곧 연구자가 이에 해당한다. 시리즈(series)는 동일한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활용되어 하나의 편철 체계로 정리된 기록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주로 특정 주제를 지니거나,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형성된 기록 집합체인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주제의 대주제 분류가 이에 해당한다. 윤택림의 경우 대주제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6가지 대주제는 지방사, 여성사, 생활문화사, 가족사, 분단, 역사치료다. 파일(file)은 업무나 주제,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나의 폴더에 모아놓은 기록건의 집합이다. 이는 기록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계층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프로젝트 및 차수(연도)가 이에 해당한다. 아이템(item)은 일반적으로 기록 관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기록 집합체에서 구분되는 하나의 기록 아이템은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지만, 이는 하나의 기록으로 취급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예를 들어 여러 쪽으로 나뉜 편지나 여러 페이지에 정보가 담긴 현지조사노트는 내용상 하나의 기록 아이템으로 취급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프로젝트 안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매체별 개별 기

록이 이에 해당한다.

4.3 자료의 기술

본 연구에서 기록물은 집합적이고 계층적으로 기술된다. 집합적 기술은 일련의 기록을 별개 아이템이 아닌 전체 집합의 관점에서 통일적 개관으로서의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록물 기술의 기본 전제는 개별 문서의 내용보다는 집합적 내용의 윤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록물 기술의 기본적 전제는 일반적 수준에서 구체적 수준으로, 각 계층간의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현문수 2002, 77).

구체적인 기술요소 및 기술규칙(안)은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인 ISAD(G)를 기본으로 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로 구성하였다.⁴⁾ 일반 문서기록 중심의 기술규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구성된 연구기록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파일 및 아이템 계층의 기술요소에 연구기록 범주영역을 추가하거나 각 기술요소 및 하위요소를 부분적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4.3.1 계층별 기술요소(안) (<표 4> 참조)

4) 권미현(2004, 2007), 김은영·강규형(2012), 현문수(2002)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세 연구는 모두 구술기록 혹은 음성기록에 대한 관리방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체의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는데 있어 본 연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미현과 김은영·강규형은 모두 구술자료의 정리와 기술을 다루었다. 강제동원위원회와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구술이라는 방식으로 생산된 구술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이다. 권미현은 ISAD(G)의 7개 영역에 물리적 기술영역과 보존영역을 추가하여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SAA의 『Oral History Cataloging Manual』과 현문수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술요소(안)을 제안하였다. 김은영·강규형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사례를 검토하여 분류계층 설정을 제시하고, 기술의 경우 ISAD(G)와 국사편찬위원회 구술기록 기술규칙을 참고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현문수는 KCR4(안)의 녹음자료 기술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MAD, RAD, IASA의 음성기록물 기술규칙 부분을 참고하였다.

〈표 4〉 계층별 기술요소(안)

기술영역	시리즈	파일	아이템
	기술요소	기술요소	기술요소
식별영역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기술계층	기술계층	기술계층
	표제	표제	표제
	규모와 매체(유형)	규모와 매체(유형)	규모와 매체(유형)
생산배경 및 출처영역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일자	생산일자	생산일자
	생산배경정보	생산배경정보	생산배경정보
		지원기관	
		과제기간	
내용영역	키워드(주제어)	키워드(주제어)	키워드(주제어)
	내용	내용	내용
		과제형태	
접근 이용조건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언어	언어	언어
연관기록물	관련기록물정보	관련기록물정보	관련기록물정보
기술통제영역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
	규칙과 규약	규칙과 규약	
	기술일자	기술일자	기술일자
	주기 사항	주기 사항	주기 사항
보존영역	보존장소	보존장소	보존장소
연구범주영역			연구기록 범주 ⁵⁾
물리적 기술영역			기술적 요구사항
			크기 및 재질

4.3.2 기술규칙(안)

앞서 제안한 문화기술지적 자료 연구기록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기술규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계층별로 중복되는 요소 이외에 계층별 독자적 요소의 기술규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1) 식별영역

(1) 등록번호

기록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기술한다.

등록번호는 연구기록의 경우 각 연구별 ‘과제번호’가 반영될 수 있으며, 혹은 각 연구자(연구 집단)내의 규칙을 정하여 이에 따른다.

(2)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정리계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 중인 기록단위의 계층을 기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시리즈-파일-아이템이 곧 계층이다.

5) 연구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단계별 연구기록의 범주를 기재하여 어느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기록물인지를 구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원기록, 연구수행기록, 연구정보기록, 연구결과기록이라는 4개 범주가 존재한다.

(3) 표제

기록물을 식별하는 제목이다. 또한 향후 검색시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록물의 표제는 기술의 정보원에 나타난 제목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제목이 없을 경우 기록물의 전체적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특히 연구 과제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설명을 기술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각괄호([])로 표제를 묶어주고 주기를 첨부한다. 연구기록의 경우 연도(차수)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제목 마지막에는 연도를 함께 기술한다.

(4) 규모와 매체

기록물의 물리적이거나 논리적인 범위와 크기 및 기술단위의 매체를 기술한다. 특정매체와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나 측정 단위를 제시하여 기술한다. 파일로 존재할 경우 폴더의 개수와 파일유형, 파일크기를 단위와 함께 기술한다. 매체의 주요 유형은 도면, 지도, 그림, 영상, 음성, 사진, 문서 등이다.

2) 생산배경, 출처 영역

(1) 생산자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유지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기록의 경우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자나 연구단체가 생산자의 범위에 속한다. 여러 연구자의 공동연구인 경우 책임, 전임연구원급까지 기술한다. 생산자명에 당시 소속을 부기한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의 과정에서 수집자와 원본제작자가 모두 존재할 경우 이들을 모두 기술한다. 아이템 계층에서 생산자를 기술할 경우 아이템

이 구술 영상이나 녹취문의 경우 면담자는 수집자가 되고, 녹취자와 영상촬영자는 원본제작자가 된다.

(2) 생산일자

기록물이 생산, 제작, 녹음된 일자를 기술한다. 대표일자를 기술하고 그 외의 날짜를 부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술한다.

(3) 생산배경정보

기록 생산자의 이력, 즉 연구기록의 경우 연구자나 연구단체의 이력을 기술한다. 또한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배경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연구자나 연구단체의 기원, 발전 또는 연구프로젝트의 기원, 목적 등에 관해 기술한다.

(4) 지원기관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母)기관을 기술한다. 모기관이 또다시 상위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모든 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5) 과제기간

연구프로젝트의 총 기간을 기술한다.

(6) 과제형태

공동과제인지 단독과제인지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3) 내용영역

(1) 키워드(주제어)

기록물이 담고 있는 정보의 주요 주제어를 몇 가지 기술한다. 주요 지명, 기관, 주제 등이 해당된다.

(2) 내용

기록물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다. 기술단위 기록물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현지조사 관련 기록물의 경우 현지조사에 대한 배경과 목적, 기간, 장소 등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기술된다. 다만, 키워드에서 제시된 지명이나, 관련기록물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이 중복 기술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접근·이용조건

(1) 저작권

기록물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주로 연구지원기관이 저작권을 갖고 있을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구술면담을 통해 생산된 기록의 경우 구술자가 공동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언어

기록물의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를 기술한다. 여러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경우, 대표적으로 표현된 언어를 최대 2가지 기술한다.

5) 연관기록물

(1) 관련기록물정보

기술대상 기록물의 관련자료, 분리자료, 간행물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연구기록물의 경우 해당 연구프로젝트 수행의 과정이나 결과물 생산 후에 의무적으로 연구논문이나 단행본 등을 생산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6) 기술통제영역

(1) 아키비스트

기술업무를 수행한 아키비스트, 기관, 혹은 부서명을 기술한다.

(2) 규칙과 규약

기술시 이용한 규칙이나 규약을 기재한다.

(3) 기술일자

기술업무를 수행한 최초일자 및 수정일자를 기술한다.

(4) 주기사항

기술과정에서 다른 어느 항목에도 기술할 수 없는 특이 사항을 기재한다.

7) 보존영역

(1) 보존장소

기록물이 보존된 장소를 기재한다.

8) 연구기록 범주

(1) 연구기록 범주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단계별로 구별한 범주를 기재하여 어느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기록물인지를 구별한다. 연구지원기록, 연구수행기록, 연구정보기록, 연구결과기록이라는 4가지 범주를 선택 기술한다.

9) 물리적 기술영역

(1) 기술적 요구사항

다양한 매체 기록이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특성상 기록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각 매체별 특이 기술적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기술한다. 어떤 기기를 사용하여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2) 크기 및 재질

기록물의 크기 및 재질, 규격에 대해 기술한다.

4.4 사례: 계층별 기술적용

적용 대상 기록물 컬렉션은 연구자 윤택림으로, 기록물 시리즈는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프로젝트의 대주제 중 '생활문화사'를 설정하였다. 그 중 2003년 수행한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연구' 중 하위 연구 주제인 '부엌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 기록을 파일로 설정하고, 개별기록 아이템으로서 문화기술지적 자료 연구

기록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서류 중 '현지조사노트'를 선정하였다(〈표 5〉 참조).

이 중 기술의 적용은 파일과 아이템 두 가지 계층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술표준 및 그 외 기술 안을 유사하게 적용한 컬렉션과 시리즈 계층과 달리 파일 및 아이템 단계에서 문화기술지적 자료 연구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요소를 추가하여 제안하기 때문이다.⁶⁾

4.4.1 파일 계층(File level) 기술 사례

(〈표 6〉 참조)

4.4.2 아이템 계층(Item level) 기술 사례

(〈표 7〉 참조)

〈표 5〉 사례: 기술계층

컬렉션(collection)	생산자(연구자)	윤택림
시리즈(series)	대주제	생활문화사
파일(file)	연구프로젝트, 차수(연도)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연구_부엌의 문화사, 2003(2차년도)
아이템(item)	매체별 기록	문서류(현지조사노트)

〈표 6〉 파일 계층 기술 사례

기술요소	기술사례
등록번호	YTL_01(생활문화)_012(부엌의문화사_2차)
기술계층	파일
표제	[집과 가족의 문화사 연구_부엌의 문화사, 2003(2차년도)]
규모와 매체(유형)	녹취록 16건 330매(A4), 구술자카드 12매, 현지조사노트 2권, 참고자료(학위논문) 43권, 참고자료(정기간행물) 54권, 음성테이프 23개 총 약33시간, 음성파일(MP3) 15개, CD 24장, 사진 255매, 건축도면 47매, 지도 5개, 그림 19매

6) Miller(1990)는 기록물 관리기관이 정리와 기술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대체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서는 파일 단위로 기술하게 되고, 아카이브에서는 시리즈와 하위시리즈 계층에서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였다(Miller 1990, 45-46; 이소연 2002, 154 재인용).

기술요소	기술사례
생산자	윤택립(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학교 인문대학 ○○학과 교수), ○○○(○○대학교 ○○대학 ○○학 교수)
생산일자	2003년 1월 1일
생산배경정보	<p>과제번호: 074-AS1017,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200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 과제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p> <p><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연구는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 있었던 기간을 크게 구한말부터 일제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두 시대로 나누어 혼인, 세대관계, 그리고 부역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 본 연구는 3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연도에는 구한말에서 일제시기까지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2차 연도에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차 연도에는 1990년대 이후 최근의 변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p> <p>부역연구에서는 부역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과정이 중심이다. 지난 100년 동안 부역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공간의 주체였던 여성들은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였는가. 또 그 사건들이 여성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집중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는 그 사건들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또 주제별로 묶어 보았다. 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건이 여성의 일과 생활 그리고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p> <p>특히 본 파일에서 다루는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부역의 변천과 여성의 생활문화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 부역의 변화에서 우선 기술의 발달과 부역일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의 변화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첫 번째로 신문, 잡지와 같은 문헌 자료를 통하여 1980년대가 되어야 사라진 식모라는 가사보조자와 가정주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가정주부가 부역의 주 노동자가 되면서 부역의 실내 입식화와 가전제품의 사용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구술 생애사 자료를 통하여 실제로 당시의 부역의 입식화를 경험하고 아파트로 주거생활이 변화한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가족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p>
지원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과제기간	2002-2005
과제형태	공동
키워드(주제어)	생활문화사, 부역, 여성, 산업화, 주부, 입식화, 아파트, 전통가옥, 주방, 생애사, 구술사, 핵가족
내용	<p>부역 연구에 있어서도 혼인과 세대관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제2차년도의 경우 신문, 잡지, 관련 서적, 팸플릿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방 이후 주요 여성잡지 “여성중앙”, “여성동아”, “여원”에서부터 최근의 “리빙센스”, “즐거운 우리집” 등에서 나타나는 부역의 변화와 여성의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의 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서 및 연구논문을 검토하였다. 현지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서울의 도시화와 확장에 따른 주택의 변화를 1960, 70년대 초기 산업화 시기와 1980, 90년대 후기 산업화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구술 생애사 인터뷰는 1960, 70년대를 기억할 수 있는 50-60대 아주머니들의 구술 생애사 면접과 1980, 90년대 30-40대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p> <p>전라도 지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농촌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연구서 및 연구논문을 검토하고, 특히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생긴 농촌 주택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주택과 부역의 변화과정을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시기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서의 입식부역의 등장과 여성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당시의 변화과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50-70대 할머니들의 구술 생애사 면접을 함께 실시하였다.</p>
저작권	한국학술진흥재단, [2차년도 구술자] ⁷⁾

7) 앞서 기술규칙(안)에서도 언급했듯이 질적 연구기록의 저작권은 연구지원기관에만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구술기록의 경우 구술자가 공동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술자를 공동 저작권자로 기술하였다.

기술요소	기술사례
언어	한국어
관련기록물정보	관련자료 : 2차년도 결과보고서(한국학술진흥재단 제출) 녹취문 : CD_2차년도 녹취문 간행물정보 : 1) 2004, 『해방이후 한국 부역의 변화와 여성의 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집 3호. 2) 2005,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의 이해: 집안일과 육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집 2호. 함한희와 공저.
아키비스트	최정은, 한국구술사연구소
규칙과 규약	한국구술사연구소 내부 규칙(ISAD(G)기반 자체 선정 규약), 2012년 7월 초안 완성.
기술일자	2012년 7월 18일
주기 사항	*
보존장소	한국구술사연구소 자료실

〈표 7〉 아이템 계층 기술 사례

기술요소	기술사례
등록번호	YTL_01(생활문화)_012(부역의문화사_2차)_0001
기술수준	아이템
표제	[현지조사노트_2차년도_윤택림]
규모와 매체(유형)	스프링노트 1권, 총 약100쪽 분량
생산자	윤택림
생산일자	2003년 1월 13일-2004년 3월 19일
생산배경정보	윤택림이 작성한 현지조사노트.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역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 제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다.
키워드(주제어)	남산한옥마을, 북촌마을, 과천, 전주, 군산, 부역, 한옥, 전업주부
내용	현지조사노트에는 서울, 경기, 전북 지역 현지장소에 대한 답사정보와 실제 접촉한 21명의 구술자 및 현지인들과의 면담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면담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역 도면이 약 16건 정도 그려져 있으며, 구술자의 신상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자료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립중앙도서관, 북촌한옥마을 등에서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현지조사한 지역에 대해 연구자가 메모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구술면담을 통해 작성된 '면담일지', '면담후기'와 같은 정보도 함께 기술되어 있다.
저작권	윤택림
언어	한국어
관련기록물정보	관련자료: CD_ 학술진흥재단-부역의 문화사-2차년도_도면 CD_ 학술진흥재단-부역의 문화사-2차년도_사진 CD_ 학술진흥재단-부역의 문화사-2차년도-구술자 사진 CD_ 학술진흥재단-부역의 문화사-2차년도-발표자료(부역팀) -> 현지조사일지와 인터뷰 일지가 수록되어 있음.

기술요소	기술사례
	녹취문 : CD_ 학술진흥재단-부엌의 문화사-2차년도 녹취문(구술자(총 21명): 윤○○, 김○○, 이○○, 최○○, 권○○, 문○○, 박○○, 장○○, 신○○, 박○○, 권○○, 권○○, 김○○, 박○○, 권○○, 정○○, 김○○, 김○○, 윤○○, 이○○, 이○○)
아키비스트	최정은, 한국구술사연구소
기술일자	2012년 7월 18일
주기 사항	연구자 개인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구술자, 현지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존장소	한국구술사연구소 자료실
연구기록범주	연구정보기록
기술적 요구사항	종이로 되어 있는 일반적 노트이다. 보존 상태는 기록물의 겉면이 하드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다. 철제스프링이 달려 있어 향후 녹이 생길 수 있고, 보존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캔을 통해 자료를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다.
크기 및 재질	재질은 종이며, 외부는 하드커버로 되어 있다. B5 크기이다. 한 권 전체를 모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요소 및 기술규칙(안)을 토대로 파일과 아이템 두 가지 계층에서 기술적용을 해보았다. 연구기록관리라는 특성상 연구자와 관리주체인 아키비스트 간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된다는 측면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생산된 연구기록을 현 2012년에 기술할 경우 아키비스트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파일 계층 기술요소 중 생산 배경정보와 내용 요소의 경우 연구프로젝트가 시행된 배경과 주요 내용, 연구자(연구 집단)의 배경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그러하다. 실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인 필자는 연구프로젝트의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관련 맥락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 지원기관에 결과물로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경우 파일 계층 기술요소에 적합한 수준의 맥락정보가 풍부하다. 따라서 아키비스트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충분히 기술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템 계층 기술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개별 아이템의 기술을 할 때에는 특히 앞서 파일 계층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생산배경정보요소와 내용요소)의 경우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현지조사노트의 경우 노트의 맨 앞 장부터 마지막 정보가 적힌 장까지 아키비스트는 자세히 기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프로젝트에 아키비스트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지조사노트라는 연구기록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이템 기술을 위해서는 그 기록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가 이러한 항목을 기술하는데 참여한다면 질적으로나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연구자가 기록 아이템 단위까지 기술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구자가 아키비스트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연구자는 그러한 맥락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혹은 어느 기록아이템을 보면 양질

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필자들은 연구프로젝트 참여 연구자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요소를 작성하거나 실제 적용을 할 때 서로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아키비스트가 생각하지 못한 맥락정보가 연구자를 통해 확보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 내용은 보다 풍부해졌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경험은 현실적으로 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술요소 및 규칙을 제안함에 있어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맺는 글: 연구기록 관리의 지평을 넓히며

연구기록은 누구를 위한 기록관리인가? 연구기록은 연구자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연구자를 위해서인가? 왜 연구기록이 필요한가? 연구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가 또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논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가? 현재 기록관리학에서 연구기록 특히 연구노트의 중요성은 연구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서 부각되고 있다.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는 특정 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허나 공신력의 바탕을 연구기록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를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연구노트의 성실한 기록은 연구프로젝트 관리 및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기록

이 질적 연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을 포함하게 될 때에 연구기록의 목적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한 개인 연구자의 컬렉션을 연구기록 관리 차원에서 기록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선 그 연구자 자신에게는 필요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컬렉션이 개방된다면 시리즈에 해당하는 대주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자들도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적 연구기록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public) 기록으로서, 하나의 연구기록 아카이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증거와 관리 차원에서의 연구기록관리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기억의 재현물들이 개방되고 소통될 수 있는 아카이브 본래의 목적에 더 충실해진다.

본 연구가 시도한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연구기록 관리 방안은 한 연구자의 컬렉션을 넘어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질적 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기록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구기록의 범주를 한국에서 최초로 문화기술지적 자료에 적용해서 기술해 보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연구기록관리가 자료를 생산한 연구자와 아키비스트와의 공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된 연구기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연구자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윤택림의 “부엌의 문화사”에서 수집된 다양한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을 연구기록화 하는 작업은 일상사,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시발적인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문화기술지적 자료들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일상사 또는 공동체 아카이브(곽건홍 2011; 이영남 2012; Anne Gilliland 2012; Kelvin White 2012)에서도 똑같이 다루어야 하는 자료들이다.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민들의 일상과 생활, 그들의 경험과 기억의 재현물들은 문서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그들의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충실히 기록될 수 없다.⁸⁾ 즉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의 생산자와 기록의 관리자가 함께 하는 공동작업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연구의 결과물인 연구논저만이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하던 양적 연구를 하던 연구자 자신이 수집하고 생산한 연구 자료들이 중요한 연구기록임을 인식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연구 자료들이 학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기록으로서 남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연구기록관리의 지평은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록관리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페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권미현. 2004.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112-144.
- 권미현.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 303-339.
- 김대율. 2008. 연구관리기관의 연구기록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상준. 2008. 연구기록물 중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관리 제도화. 『정보관리연구』, 39(2): 45-74.
- 김은영, 강규형. 2012. 구술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리방안 연구: 논리적 정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5: 229-257.
- 김지현. 2011. 자연과학분야 대학실험실에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139-159.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윤은하. 2011.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7-94.

8)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술회의 발표자인 Kelvin White는 공동체아카이브 연구를 위해서 멕시코의 한 마을에서 6개월 간 현지에 체류했다고 한다.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소연. 2002. 『ISAG(G)를 적용한 한국기록물 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용숙. 2010. 현장연구 자료의 기록과 관리의 다양한 방법들. 『열린교육연구』, 18(1): 97-126.
- 임진희. 2011. 연구 품질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183-206.
- 최현옥, 이해영. 2010. 우리나라 공과대학 연구실 연구기록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19-139.
- 현문수. 2002. 음성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 73-120.
- Gilliland, Anne. 2012. *Appraising community archives in support of community governance, history and voice*.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기록의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2012.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기록의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2012.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 Mil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2007. *HEI Records Management: Guidance on Managing Research Records*. [online]. [cited 2012.7.6]. <<http://www.jiscinfonet.ac.uk/partnerships/records-retention-he/managing-research-records>>.
- White, Kelvin. 2012. *The Role of Knowledge Infrastructures in Promoting Inclusive Archives and Participatory Democracies*.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기록의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2012.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